

허동욱 신임 신협중앙회 전북본부장 임명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신임 본부장에 허동욱 IT개발본부장이 임명됐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11일 조합 지원기능과 조직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허 본부장을 전북지역본부장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기존 관리 중심 조직 체계를 사업·실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조합 지원 조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허 본부장은 오는 16일부터 전북지역 70개 신협을 이끌게 된다.

1969년생으로 담양군 출신인 허 본부장은 2004년 신협중앙회에 입사해 IT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아왔다. 계정계개발팀장과 정보계개발팀장, 품질관리팀장을 거쳐 IT개발본부 본부장을 역임하며 20여 년간 신협의 IT 혁신을 이끌어왔다.

차분한 성품과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밭대학교 창업경영대학원에서 금융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해 현금흐름 분석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허 본부장은 "포용금융의 선두주자인 전북신협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며 "전북지역본부가 전북신협이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2025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 도 단위 3위

전북소방본부, 구급분야 시책 개선... 정책 추진 역량 강화 '결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2025년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전국 도 단위 3위를 기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사진)는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전년 대비 3.2%의 실적 개선을 이루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정책 추진 역량과 현장 대응력, 조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는 7개 분야 14개 항목, 40개 세부지표로 구성돼 전국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행정 전반을 평가한다. 전북소방은 특히 구급 분야 시책과 역량 평가에서 큰 폭의 개선을 보였으며, 조직문화 개선과 지속가능성 확보 지표에서도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평가에서 미달했던 성과 지표를 크게 개선하며 전반적인 정책 추진 역량을 높인 점이 이번 성과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전북소방은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포상금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며, 해당 포상금은 화재 피해 주택 복구 지원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 직원의 노력과 현장 중심 정책 추진이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서비스 제공과 국민 중심의 소방정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가 국민행복소방정책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021년 평가 이후 4년 만이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 정책 혁신을 통해 도민이 신뢰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힘을 모으고 있다.

/오만호기자



완산구, 지역 주요 간선도로 중심 환경정비

전주시 완산구는 봄철을 맞아 11일 구청 각 과 및 동 주민센터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하여 관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속도게 교차로 일원과 천장포 중앙분리대 녹지대 등 주요 간선도로 내 청소 취약 구간과 관리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쓰레기 적체가 잦은 도로 구간과 녹지대까지 포함해 부서 합동으로 일제 청소와 정비를 추진했다.

완산구는 이번 대청소와 함께 도로 시설물 점검과 정비도 병행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승철 완산구청장은 "이번 대청소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며 "도로와 녹지대 등 생활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산구는 앞으로도 매월 현장행정요일 운영을 통해 해빙기 안전점검과 우기 대비 도로 빗물받이 점검 및 준설 등을 실시해, 시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결하는 시민 체감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장수서 발달장애인 대상 말산업 분야 직업훈련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과 한국마사회 장수목장(목장장 김진갑)은 지난 11일부터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말산업 분야 기초 직업훈련을 시작하였다.

말산업 분야 기초 직업훈련은 장수목장이 운영하는 말 요양소 마방 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토대로 훈련을 진행하게 되며, 11일부터 총 15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과정에는 발달장애인 5명이 참여하며,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종합평가를 진행하여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또는 말 관련 사업체 취업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마사회 장수목장은 지역사회 복지향상 뿐 아니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보여 왔으며, 2025년에는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과정에 함께 해 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기도 했다.

/장수=고관호기자



동충등 등, 취약계층 점심 제공 협약 체결

남원시 동충등 행정복지센터(동장 박미라)는 3월 12일, 남원시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음식점인 '풍년갈국수'와 취약계층 점심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관내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과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해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지역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동충등 행정복지센터는 '1일 1기구 소통행정'을 통해 결식 우려 대상자를 발굴·선정해 식사 지원을 연계한다.

연합회 강상남 회장은 "식비 지원과 회원들이 배식 봉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물론 풍년갈국수(대표 영노준)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전했다.

박미라 동충등장은 "이번 협약에 함께해 주신 연합회 강상남 회장님과 풍년갈국수 영노준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취약계층의 결식 예방과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담양 농협 군지부, 고향사랑 상호기부

순창군과 담양군 농협군지부는 12일 고향사랑기부금 총 1,002만 원을 상호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일 순창군수, 신종철 농협 순창군지부장, 이광재 농협 담양군지부장, 설복태 서순창농협 조합장, 담양군의 김상용 금성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하여 고향사랑기부금 교차 기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두 이웃 인접 지자체 간 상생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순창군과 담양군의 각 농협 군지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해 순창군에 500만 원, 담양군에 502만 원, 총 '천리만' 원을 기탁했다.

이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 '하루 천 리를 달리는 천리마(千里馬)의 기운'을 담아 양 지역의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기원하고 협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아울러, 이번 기탁식은 지난해 11월 순창군과 담양군의 '농협 군지부 및 관내 14개 농축협 모두가 참여해 체결한 자매결연에 따른 상생 교류협력 강화 차원에서 순창군과 협력해 마련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한독엘리베이터 사장, 남원시에 고향사랑 기부

남원시 관계자는 (주)한독엘리베이터 유정목 사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북 완주군에 소재한 (주)한독엘리베이터는 승강기 제조·설치 전문 기업으로, 평소 나눔 경영을 실천해 온 우수 중소기업으로 이번 기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남원시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복지를 실천하고자 하는 유정목 사장의 진정성 있는 뜻이 담겨 의미를 더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17일 장애인 '건강더하기 재활교실' 개강

김제시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활력 회복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상반기 '건강더하기 재활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신체기능 증진을 위한 △운동 △원예 △공예 △요리, △아로마테라피, △레코에이션 △구강 건강 관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또한 참여자들의 협업, 할당 측정 및 상하지 신체기능검사를 사전·사후로 조사해 건강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건강더하기 재활교실'에 반영해 참여자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전북 지역장애인 보건요양센터에서 협력해 안전한 약물사용 관리방법과, 생활속 영양관리 등 장애인의 생활속 건강관리와 정서적 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전주시, 유관기관과 간담회

전주시는 12일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지역 내 전문 유관기관들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동노동자들이 업무 중 겪는 직무 스트레스와 산업재해, 안전 복잡한 세금 문제 등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주세무서,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 전북 근로자건강센터, (사)전주시자원봉사센터, 전북도노동권익센터, 전주수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이 참석해 지난해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전주시는 관계기관별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의견 등을 나눴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유관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공모



를 통해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임숙희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동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고충은 전주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기관의 협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지역 인재 육성에 써주세요" ... 고창군에 장학금 기탁 잇따라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재)고창군장학재단은 대한고속 이호진 대표가 500만원, 용천건설 박은주 대표가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호진 대한고속 대표는 "고창의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하며 지역을 빛낼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은주 용천건설 대표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기탁의 뜻을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기탁자 한분한분의 정성을 모아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다시 지역을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고창군장학재단에 2026년 연초부터 3월 현재까지 모인 장학금은 총 9,000여만 원에 달하며, 기탁된 재원을



비탕으로 서울·전주 장학금 운영 등 다양한 인재 육성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장애인종합복지관, 2026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 설명회

정읍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1일 장애인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설명회에는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 내 장애인 시설·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정읍시의 평생학습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과 세부 프로그램을 공유받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2년 연속 지정된 정읍시는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2026년 총사업비는 전년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 규모이며, 이를 통해 관내 980여 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5개 영역 21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기점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해 배



우이 온전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회 참여로 확장되는 선순환 체계를 굳건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에 뿌리내린 도미지파 '창립 42주년'

전주의 역사적 토양 위에 뿌리내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미지파(지파장 이용우)이 창립 42주년을 맞았다. 신천지 12지파의 공동된 목표에 발맞춰 도미지파의 활동무대 역시 해외로 뻗어 나갔다. 도미지파는 전북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 이웃을 위한 수십년의 꾸준한 나눔도 실천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호 활동'도 펼치고 있다.

2013년 전주 경원동 전주한옥마을 근처에 전국 12지파 중



처음으로 '신천지예수교의 홍보관'을 열고 신도와 시민을 연결해주는 성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